

역사·스포츠·힐링·미래... 역동적 도시 대도약 준비중

시민 행복·지역 활력이 목표

정읍시가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활력을 목표로, 문화관광, 스포츠, 힐링, 미래 교육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사업을 펼치며 역동적인 도시로의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정읍의 유구한 문화유산을 첨단 실감콘텐츠로 재해석하는 '문화유산 방문자센터'를 건립해 새로운 관광의 거점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전국 단위의 대규모 스포츠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연간 2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70억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2026년 원공 예정인 '이양산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도심 속 '음악분수' 운영을 재개



이학수 정읍시장

하는 등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한다. 나아가, '북스타트 사업'을 통해 영유아기부터 아이들이 책과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도시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정읍동학마라톤대회

▲첨단 기술로 되살아난 문화유산, 정읍 관광의 새로운 심장을 엿다

정읍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사업이 올해 12월 사용승인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첨단 기술을 통해 정읍의 풍부한 문화유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혁신적인 시도다. 연면적 4,314㎡, 2층 규모로 조성되는 방문자센터는 정읍의 역사적 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실감형 미디어아트 공간으로 꾸며진다.

센터 내부에는 상설 전시실과 체험시설이 들어선다. 이곳에서 관람객들은 정읍의 역사, 동학농민혁명,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무성서원의 가치를 오감으로 체험하게 된다. 최첨단 실감콘텐츠 기술은 텍스트와 유물 중심의 정적인 관람에서 벗어나,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생생한 몰입감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라이브 스케치 체험'이나 바다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체험' 등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문화유산을 현대적 표현 기술과 아름다운 색감으로 재해석한 이 공간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 거점이 돼 관광객 증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포츠로 활력 넘치는 도시, 70억 경제 효과로 지역을 깨우다

시는 '스포츠 도시'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달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개최하는 스포츠마케팅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월 전국 중·고등학교 스토티그검도대회를 시작으로 정읍의 스포츠 시즌은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3월에는 약 5,000명의 마라토너가 정읍의 봄을 만끽하며 달린 '정읍동학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고 전국 프로볼링대회와 전국연맹총회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등이 연이어 열리며 도시 전체에 활기를 더했다.

최근에는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자전거대회 등이 성황리에 개최됐고, 앞으로도 12개 종목에서 15개 이상의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를 연중 활발히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에만 약 2만명 이상의 선수단·관계자들이 정읍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정읍에 머무르며 식사와 숙박 등을 해결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7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판이다.

이러한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시는 2019년부터 초등학교 태권도대회,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등과 다년간 개최 협약을 체결하며 안정적으로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의 스포츠마케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정읍을 찾는 모든 선수단과 방문객들이 좋은 환경에서 대회를 치르고 소중한 추억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대회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의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도심 속 쉼표, 이양산 치유의 숲과 음악분수로 시민 곁으로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쉼'과 '힐링' 공간 조성 역시 역점을 두는 분야다. 도심 가까이에서 자연을 느끼고,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시기통에 조성되는 '이양산 치유의 숲'은 도심 속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할 힐링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총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7.24ha 규모로 조성되는 이 사업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치유의 숲은 단순히 나무가 우거진 공원이 아니고 산림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돕는 체계적인 치유 공간으로 설계된다.

숲의 중심에는 방문객 안내와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치유센터'가 들어서며, 피톤치드 가득한 숲속을 거닐며 심신의 안정을 찾는 '치유숲길', 자연의 바람을 맞으며 사색에 잠길 수 있는 '풍요장' 등 다채로운 테마 공간이 조성된다. 특히,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을 아우르는 맞춤형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양산은 기존의 유아숲 체험원, 달빛 사랑당 등과 연계해 전 세대가 함께 즐기고 휴양과 복지를 누리는 정읍의 대표적인 녹색 쉼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도심의 밤은 더욱 화려하고 낭만적으로 변모한다. 4월부터 운영을 재개한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와 정읍천 미로분수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휴식 공간이다.

내장저수지 인근 워터파크 음악분수는 463개의 분수 노즐과 276개의 LED 조명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야경을 선사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정읍천 미로분수는 음악분수, 물놀이, 거울 연못의 세 가지 기능을 갖춘 특별한 공간으로, 민선 8기 '정읍천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의 성공적인 결과물이다.

시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분수 쇼를 감상할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순조 대규모 스포츠대회 적극 유치 미로분수 등 힐링 공간 조성 역점 북스타트 통해 미래 세대 투자

수 있도록 60억 규모의 자연 친화형 관람석을 조성하는 등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책과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 미래를 여는 '북스타트' 사업

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아이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13년째 이어오고 있는 '북스타트 사업'은 정읍시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업은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1학년 어린 이까지, 성장 단계에 맞춰 책꾸러미를 선물하고 다채로운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독서 진흥 운동이다. 책꾸러미는 그림책 2권과 가이 드북, 예코백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출생신고 시 바로 전달받거나 도서관 방문·택배를 통해 손쉽게 수령할 수 있다.

책을 나눠주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책과 함께하는 오감발달 책놀이, 부모를 위한 그림책 육아 교육, 온 가족이 함께하는 북스타트 가족의 날 등은 책을 매개로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책꾸러미를 전달하고 작가와의 만남 등을 주선하는 '책 낚개 행사'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 독서의 즐거움을 선물한다.

이학수 시장은 "북스타트 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책과 함께 성장하고, 책을 평생의 친구로 삼아 더 큰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미래 세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기대를 나타냈다.

이처럼 정읍시는 역사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스포츠를 통해 도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며 자연 속에서 시민의 삶을 치유하고, 미래 세대의 꿈을 키우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머물고 싶고, 찾고 싶은 도시'로의 변모를 거듭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대한민국 수제맥주 일번지,
군산에서 즐기는 진짜 우리 맥주!!



6.20(수) 한영애 밴드 | 6.21(목) 체리필터 | 6.22(금) 박완규 밴드

6.20 FRI ~ 6.22 SUN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일원

군산시